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7회 호렙산 기도회

“그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

6.2~7.11
매일 새벽 4:45



제37회 호렙산 기도회, 회복의 은혜 넘쳐

“그날에 큰 능력을 보리라” 60여 개국에서 함께 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40일의 여정 중 반환점을 돌아 4주 차를 지나고 있다. 성도들은 기도회의 은혜로운 결실을 사모하며 막혔던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또한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등 9개 국 11개 선교센터를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수는 2,500회이며 시간이 지나 참여하는 성도의 수까지 하면 하루 4,000회가 넘을 정도로 기도회의 열기는 뜨겁다.

본당 로비 기도의 벽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본당 계단 벽에는 호렙산의 은혜와 간증이 담

긴 감사의 글이 부착되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다.

원근각처에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호렙산 기도회 차량 17대가 운행 중이다. 성도들은 일찍 예배당에 나와 조용한 묵상 기도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어지는 뜨거운 찬양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핸드북에 정성껏 필기하고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의 제단, 가정과 개인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국내와 지구촌 곳곳의 혼란과 불안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길 중보 기도하고 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예수님은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시는 생명의 떡이며,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신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자.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 내면의 깊은 속마

음을 고백할 때 상처가 치유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호렙산 기도회가 축제처럼 활기차다. 교역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가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렸고, 앞으로 교회학교의 찬양이 이어진다. 각 선교구도 예배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 후 선교구별로 연합속회를 드리며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교회학교와 청장년부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학교 ‘호렙 굿즈’는 매주 토요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귀여운 캐릭터와 말씀이 담긴 알파벳 카드를 나누어 주는 행사로 호렙산 기도회의 선한 열매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청장년부는 ‘호렙산 가자!’로 어린이들이 출석 도장 찍기와 뽑기를 하며 온 가족이 믿음

의 추억을 쌓고, 30·40세대에게는 청장년부를 알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다.

7월 5일(토)에는 교회학교에서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회를 진행하고, 청장년부 주관으로 본당 로비에서 제12회 소망 사진관이 열린다. 7월 11일(금)에는 성찬식을 베풀고 40일간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을 격려하며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소현수 기자



내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자

“...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인간은 두려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갓난 아기의 혼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루도 두려움에서 해방될 날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상담가 앤 랜더스(Ann Landers)에 의하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물질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 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유다와 히스기야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던 앗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끊겼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내 존재와 삶의 목적과 여정 등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정립 속에는 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1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지키셨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애굽 사람들만 삼키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불타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죽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 같은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



이사야 43:1~7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다가오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 사명의 삶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모리스 와그너(Maurice Wagner)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구성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 둘째는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감, 셋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많은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소속감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이자 존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힘 주실 때에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꼭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생기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본문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예배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사라지니 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스와 스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댓가를 치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대답은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4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사랑하기에 회생을 치르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속감과 더불어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호렙 굿즈’(Horeb Goods)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진행하고 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가족들은 토요일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도의 제단에 오른다. 교

회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가족과 함께하는 호렙산의 주제는 ‘Horeb Goods’이다. 단순히 ‘좋은 것들(Goods)’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Good’ 선한 열매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Goods’ 말씀 카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당 로비에서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비타민과 함께 호렙 굿즈인 말씀 카드를 나눠 준다. 이 말씀 카드는 희망, 순종, 기쁨, 비움, 지음, 은혜, 하나 됨, 유일, 갈망, 비밀 등 열 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와 주일 부서 예배에서 한 장씩 호렙산 말씀 카드를 받을 수 있고, 10개의 카드를 모두 모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 카드는 단순한 수집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됐다.

정성민 목사(교회학교)는 “토요일 새벽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호렙산에 올라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은혜가 된다”면서, “남은 호렙산 기도회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굿즈 말씀 카드도 모으고, 이른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7월 5일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함께하는 특별찬양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이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마련된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가 곧이어 시작된다. 교회학교는 이번 기도회를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영적인 준비 기간으로 삼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믿음 위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학교에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박희운 기자

포토 뉴스



청장년부 ‘호렙산 가자!’ 호렙산 기도회 후에 희망의 탑 앞에서 뽑기와 스탬프 쿠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GOD's Image 초청 예배 6월 22일(주일) 오후 2시 30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초청 예배가 있었다.



2025 하반기 속회공과 교구 전도사와 빛의 숲 서점에서 하반기 속회공과책을 구입할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6/2~7/11	제37회 호렙산기도회
6/11	배재학당 개교 140주년 감사예배
6/19	서우덕 홀 기념관 개관식
6/26	성령한국 청년대회 설명회
6/29	UMC 총감독회 사무총장, 선교국 대표단 방문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토요일 선교구 연합속회



호렙산 기도회의 영적 열기는 매주 토요일, 교회 곳곳에서 선교구 연합속회로 이어지고 있다. 새벽 4시 45분 본당에서 시작되는 기도의 불길은 오전 6시가 되면 선교구별 말씀과 찬양, 기도 모임으로 확장되며 성도들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

1선교구는 ‘그 때, 그 자리’(눅 19:5)라는 주제로 6월 14일과 7월 5일 오전 6시 10분, 성가대실에서 연합속회로 모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3선교구는 6월 14일과 28일,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2실에서 속회를 열었고, 5선교구는 6월 7일과 7월 5일 애찬관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한다. 6선교구는 6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시온성

전에서 연합속회를 진행했다. 4선교구는 매년 호렙산 기간 토요일마다 연합속회를 드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벨렐성전에서 모였다. 안산돌 목사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이번 호렙산이 영적 성장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자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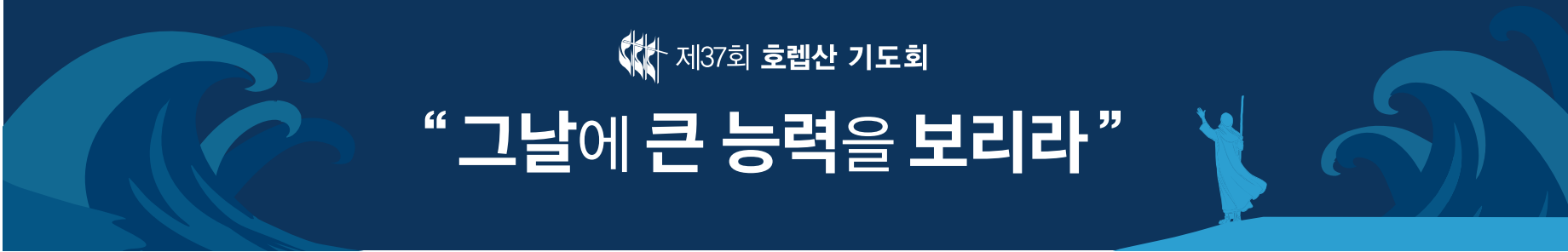
8선교구는 6월 28일, 나사렛성전에서 특별한 속회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는 8선교구와 자매교회로 연결된 P국 K스쿨에서 사역 중인 안주석 선교사가 초청되어 직접 선교보고를 전하고, 말씀도 함께 나눴다. 특히 8선교구는 호렙산 시작부터 성도들에게 기도 팔찌를 나누며 호렙산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9선교구는 호렙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사

회봉사관 5층 세미나3실에서 속회를 열고 있으며, 10선교구는 6월 14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연합속회로 모인다. 도신우 목사는 교회와 거리가 먼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회봉사관 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헌신에 감동을 전하며, 지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열정을 칭찬했다. 7선교구는 7월 5일 옥상공원에서 자연 속 예배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선선한 아침 공기 속에서 들리는 찬양과 말씀은 또 다른 감동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복돋우며, 광림의 토요일을 은혜로 가득 채우고 있다.

한혜선 기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년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먼저 출국했고, 저와 딸아이는 유치원 자리를 기다리며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했던 기독교 사립 유치원은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고, 인종별 정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 자리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며 “왜 이렇게 자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불평하던 중, 호렘산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유치원에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입학 허가를 받아 7월 말에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되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준비하던 중, 주재원 가족 건강 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 췌장암이나 췌장염 가능성을 의심받았고, CT 재검을 통해 치료 여부와 일상생활 제한 여부를 확인한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속회 집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남편,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아이가 아직 어린데, 제 손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건강히 곁에 있게 해주세요”라며 호렘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치료가 필요 없으며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소견서를 손에 들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앞으로의 3년 미국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나경 성도(15교구)
--	---	---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호렘산 기도회. 40일의 대장정을 앞두고 저는 부담감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호렘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이 40일은 결코 큰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새벽을 깨우는 일은 솔직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삼 남매를 양육하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주변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좀 덜 젊어지고 편히 살아도 되지 않	겠냐고...” 자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우상이 될 만큼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덕분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감사하며, 올해도 삼 남매를 위한 기도를 품고 호렘산에 올랐습니다. 큰딸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인 플라워 샵	을 열고 싶다는 소망을 위해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응답해 주셨습니다. 2025년 5월 4일, 큰딸은 감격 속에 개업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딸은 운영 중인 학원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확장 이전이 필요했기에,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는 7월에 새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의 목표와 하루 매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셨고, 세 자녀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욕심 많은 어미일지라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위해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강은 집사(23교구)
---	--	--	---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무속인의 딸로 태어나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때는 교회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결혼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많은 분이 전도하셨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양가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가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통해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반년 동안 제 사무실을 찾아와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저는 처음엔 강한 반감이 일었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며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너무나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갈 마음이 준비되어 신중히 교회를 찾던 중, 안은숙 성도님을 통해 광림남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니 목사님, 전도사님, 새가족 위원장님 등 모든 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품 같았습니다. 호렘산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도사님의 권면에, 간절한 마음으로 6월 2일 양지에서 첫걸음을 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40일 새벽기도를 지각 없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다짐하며 실천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이 제 마음을 강렬히 울렸고, 그 앞에서 절림과 회개로 눈물 흘리며 호렘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호렘산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제 안에 살아 숨 쉬는 것이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며 믿음이 굳건해질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호렘산 기도회 40일을 은혜 가운데 완주하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송재영 성도(광림남교회 52교구)
---	--	---	--

목회현장

조용한 은혜의 20년, 영어예배 사역



광림 영어예배 사역 20여 년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 중 하나는, 영어예배 1주년 예배 때 플루트를 연주하던 5학년 여자 어린이 산드라입니다. 수줍음이 많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모든 행동에서 빛났습니다. 지난달, 산드라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산드라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

욕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영어예배에서 저를 만나 반갑게 인사해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작은 손으로 플루트를 들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제는 성인이 되어 성숙함과 따뜻함을 풍기며 우리가 나누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의 무게와 은혜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어예배는 조용한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2세, 단기 방문자 등으로 예배에 참석하고는 떠나 갑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산드라처럼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릴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시야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떠나가는데, 이 사역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역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지속되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어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관심을 갖는 이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들의 관심과 격려, 함께함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림남교회와 광림북교회에서 사역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성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법,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 간증이 없더라도 분명한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광림 영어예배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영어예배를 통해 심긴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으리라 믿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끝내 보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광림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어예배에 초대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세대, 전통을 잇는 성령 충만한 예배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예배 장소: 본당 B1층 두란노채플

Rev. Wesley Kennedy Post(영어예배부)

청년부

2025 LFC, 복음을 품고 현장으로 나서다

2025년 여름, 광림교회 LFC 청년선교국이 복음을 품고 현장으로 나선다. 예수님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따라, 청년들은 국내와 해외, 성령한국 청년대회까지 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한다. 청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지역 교회를 돕고,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청년선교국은 올여름도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선교: 지역교회를 향한 생명의 발걸음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LFC 청년부는 ‘믿음으로’(히 11:6)를 주제로 전국 13개 지역, 약 100개 교회와 연합하여 교육선교를 진행한다. 약 1,000명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찬양,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실제 지난해 함께한 3개 지역은 올해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청년선교국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교회가 식사, 교재, 티셔츠, 설교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선교회는 식사비를, 남선교회는 차량을, 실업인선교회는 숙소를 지원하며 교회가 동역하고 있다.

해외선교: 네팔과 잠비아,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다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청년부는 네팔과 잠비아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 네팔에서는 ‘100교회 건축 비전’의 64번째 교회인 ‘임마누엘 기도 감리교회’의 봉헌예배와 신학교 강의,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잠비아에서는 새로 세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과 전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선교는 사역뿐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여정이다. 매년 5개국에 단기선교팀을 보내는 청년선교국은 올해 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이어 네팔과 잠비아에서도 복음의 발걸음을 이어간다.

2025 성령한국 청년대회 with ASIA
오는 8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2025 성령한국 청년대회 with ASIA’가 열린다. ‘마르투스’(증인)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10,0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된다. 이번 대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과 Miracle(희망), Rise(믿음의 회복), Together(성령의 연합), Shine(열방으로의

파송)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 받던 아시아 청년들이 이제 선교하는 세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년 세대가 이탈하고 연합 집회조차 사라진 현실에서 이번 대회는 청년을 다시 예배로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되살리는 자리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나는 예배자입니다”

10선교구,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캠페인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 캠페인>에 대한 10선교구 성도들의 반응이다. 우리 선교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예배자를 매주 1명씩 선정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야기나 간증을 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선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심방하다 보면 거리가 멀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들곤 하지만, 사실 거리가 멀어도 교회로 나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선교구 성도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감추어진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나누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적 도전을 주고자

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29교구 김승진 권사를 소개한다. 인천 대부도 옆 작은 섬 ‘영흥도’에 살고 있는 김 권사는 주일 새벽 4시 40분에 집을 나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흥도 버스터미널까지 도보로 1시간을 걸어간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이도역까지 이동하고, 다시 오이도역에서 사당역까지, 그리고 두 번 더 환승해 압구정역에 내려 교회에 9시쯤 도착한다. 무려 4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대장정이다. 김승진 권사가 9시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는 이유는 일본어 통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김 권사는 주일 3부예배 통역 봉사를

통해 전세계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봉사가 끝나면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왕복 이동 시간만 9시간이다. 김승진 권사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동회장님 말씀을 통역하며 제가 먼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때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김 권사의 사역 가운데 지혜와 힘과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더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되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신우 목사(10선교구)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14



야곱과 에서의 화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창 32:28)

고향을 찾아 나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압록 나무를 건넜다. 그는 먼저 가족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를 건너보낸 후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자고 도발하였다.

이에 야곱은 동이 틀 때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천사는 자기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찼다.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결국 씨름에서 진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Israel)’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이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이 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천사의 발길질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야곱은 마므레 지방에 도착하였을 즈음 기력을 거의 잃었고, 자신감마저 상실했다. 게다가

가 형인 에서가 무리와 함께 낙타를 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크게 두려웠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형 에서가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운 후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져 따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었고, 형제는 함께 울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 온 가족들의 일부를 형에게 주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받지 않았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에서는 성격이 거칠지만, 인정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야곱의 재산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은 연로하지만, 아직 살아계시며 처음 보는 손자들을 만나면 무척 좋아하실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야곱이 헤브론(마므레)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자식은 열한 명이었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모두 열두 명이 되었다.



▲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_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 장면이다. 야곱을 당해낼 수 없었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한 뒤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야곱은 축복받기를 간구했고,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알렉산드루이스 르로르 작품

그런데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오랫동안 서로 심하게 반목했다. 야곱이 사랑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게 된 레아는 열 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 하지만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귀향길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에 시달려 그만 죽고 말았다.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일어난 슬픈 사건이었고,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다.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양 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이삭은 오랫동안 안 잊고 있었던 아들 야곱을 맞을 정도의 기력은 있었으나 곧 죽게 되었고, 막벨라 굴에 안치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 옆에 묻혔다.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헤브론에 정착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대부분 험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야곱은 다시 고향 땅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인생 말미를 이집트에서 보냈는데, 그곳은 조상들의 묘소에서도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광림 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 야곱과 에서의 재회_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에서는 지난 일을 모두 잊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다. 헨드릭 반 발렌 작품

